금주의 법구-〈장부경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오직 니르바나 향해 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2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9월 30일) 2018년 11월 7일 수요일

韓 특유 '불복장 작법' 무형문화재 지정된다

문화재청 지정 예고… 보유단체 '불복장의식보존회' 인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상과 불화 내부에 불교 관련 물목(物目)들을 봉안하는 의식인 '불복장 작법(佛腹藏 作法)'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불복장 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되는 '불복장 작법'은 불상 · 불화 등을 조성해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을 봉안해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의식이다.

즉, 불복장 작법은 봉안 의식을 통해 세속적인 가치의 불상 · 불화에 신앙적 가치가 부여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700년 秘藏돼 전래된 중요 의식

불복장 작법은 1500년대부터 간행된 〈조상경(造像經)〉을 바탕으로 조선 시대에 활발하게 설행(設行, 베풀어 행함)됐지만, 앞선 고려 시대부터 설행돼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불교국가 중 불복장 작법이 의식으로 정립 · 전승되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 의례의 저본이 되는 〈조상경〉 역시 한국에만 있는 경전이다.

이 같은 불복장 작법의 역사성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의 주요한 요소가 됐다. 문화재청은 "불복장의 절차와 의례 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돼 있다"면서 "세부 내용마다 사상적 · 교리적 의미가 부여돼 있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불복장 전수 노력들 결실맺어

이와함께 불복장 작법 보유단체로는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회장 경암, 이하 불복장의식보존회)'가 인정 예고됐다.

불복장의식보존회는 평생 불복장 작법 전승에 매진해 온 무관 · 경암 · 수진 · 승호 · 도성 스님이 중심이 돼 지난 2014년 설립됐다.

보유단체 인정 예고 이유에 대해 문화재청은 "전통 불복장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등 전승능력을 갖췄고, 종단을 초월한 주요 전승자가 모두 참여해 복장 의식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높으므로 불복장작법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불복장 작법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은 보유단체로 인정된 불복장의식보존회와 조계종의 노력으로 함께 이뤄진 결과다.

불복장의식보존회는 설립 이후 학술세미나 · 시연 · 전시 등을 통해 그간 비전돼왔던 불북장 작법을 일반 대중에게 알려왔다.

조계종 역시 문화부를 중심으로 불복장 작법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또한 2013년 12월 제정된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에 따라 전국 사찰에 무형유산을 발굴해 종단 불교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사업도 전개 중에 있다.

'불복장 작법'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불교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장 현법 스님은 "전 세계 불교 중 불복장 작법이 전해지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단순한 불상을 모시는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 점안하는 중요한 의례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고려부터 설행 · 조선代 활발
한 · 중 · 일 중 한국만 의식화
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높아

2014년 불복장보존회 설립
조계종 무형유산 발굴 성과
"불복장 작법 전승에 최선"

이어 "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지시한 종책 중 하나가 유 · 무형유산 발굴과 보존"이라며 "발우공양, 사찰음식과 같은 불교 무형유산들을 일반 대중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보유단체인 불복장의식보존회는 불복장 작법 전승 · 홍보에 매진할 계획이다. 불복장의식보존회장 경암 스님은 "보존회 설립 이래 4년여 노력들이 보상받는 것 같아 기쁘다. 조계종단의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면서 "보존회 차원의 통일된 불복장 의식뿐만 아니라 5명의 스님에게 전해졌던 작법들도 함께 전승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복장 작법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시키는 게 최종 목표"라면서 "불교 안에는 다비 · 정대불사 · 예불 등 무형 유산이 많다. 이 같은 불교 무형유산들의 지정도 추진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대 學僧, 적멸의 길 떠나다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로 활동하며 이 시대 학승으로 평가되는 조계종 원로의원 호암당 인환 대종사가 10월 26일 오후 3시 30분경 부산 내원정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67년, 세수 88세. 10월 30일 부산 내원정사에서 엄수된 영결식과 다비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종단 중진 스님들과 사회 각계 인사 등 불자 500여 명이 자리했다. 사진은 인환 대종사 다비식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행 선사 가르침 학술 조명 '활발'

대행선연구원 · 한마음과학원 학술대회 잇달아

10월 26 · 27일 안양본원서 개최
대행선 수증관 · 수행 체계부터
가르침 응용 연구까지 '다채'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선사상과 가르침을 응용 연구한 성과를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학술대회가 잇달아 개최됐다.

대행선에서 깨달음 · 수행체계 조명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은 10월 2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대행선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을 주제로 제2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대행선 수증관의 구조와 원리'에서 대행선과 묵조선의 수증관의 원리와 구조를 분석하고 그 접점을 살폈으며, 박소령 동국대 교수는 대행 선사가 제시한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 여래선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 생활선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청강 스님은 '대행의 증명관 일고'를 통해 대행 선사의 관법 수행에서 증명관의 원리와 실천에 대해 분석했다.

또한 김준호 울산대 교수가 '초기불교의 자아와 무아관'을, 중앙승가대 외래교수 법상 스님이 '묘공대행의 수행체계와 자비교화에 대해'를, 고승학 금강대 교수가 '화엄사상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을 각각 발표했다.

선사 가르침, 과학 · 교육서 응용된다면

대행선연구원이 선사의 수행에 초점을 맞췄다면 10월 27일 안양본원서 개최된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의 제3회 한마음과학 학술대회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과학 · 의학 ·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한마음과학원 식물팀은 '선법가가 콩나물의 발아, 성장 및 질병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대행 선사의 선법가가 식물 재배의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안영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공생 생명체로서의 생명의 기원과 진화' 발표를 통해 홀로게놈 개념을 중심으로 생명 진화에 대해 조명했다. 한마음과학원 의학팀은 한마음 관법 수행 시 뇌파 변화 연구 계획을 소개했으며, 한마음과학원 공학팀은 '대행 선사 법문에 나타난 에너지 발생 장치의 기초연구를 위한 활동보고'를 발표했다.

한마음과학원 교육학팀은 '대행교육학 정립을 위한 실천사례 연구'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주인공 관법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한마음선원 해외지원 역사와 특징 등을 분석한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혜유 스님은 해외지원 포교의 중요한 요소로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꼽고, "선사의 수행법이 국가와 인종을 초월해 통용된다"고 주장했다.

1천여 대중 참석… 연구 활성화

대행선연구원과 한마음과학원의 학술대회는 3, 4층 법당에 마련된 좌석을 모두 채울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전국에서 모인 지원장 스님과 신도들은 각각의 학술대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열정적으로 질의응답과 토론에 참여했다.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 개회식에 참가한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대행 선사께서 입적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2번의 학술대회가 열리고 문중이 여법하게 운영되고 있다. 선사의 수행과 덕화가 더욱 빛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상찬하며 "더 많은 대행 선사와 같은 수행자가 나오는 계기가 되는 학술연구와 발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일 간의 학술대회에서 환영사와 격려사를 한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한마음선원의 출재가 제자들은 선사께서 체득해 제시한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행법이 학술대회를 통해 많은 대중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관련 기사 A4 · 5면〉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취임법회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하오니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불기2562(2018)년 11월 13일(화) 오후 2시
장 소 조계사 대웅전

- 취임법회에 참석하시는 스님들께서는 장삼과 가사를 수하시기 바랍니다.
- 취임법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오후 1시 20분 까지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환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취임법회 봉행위원회